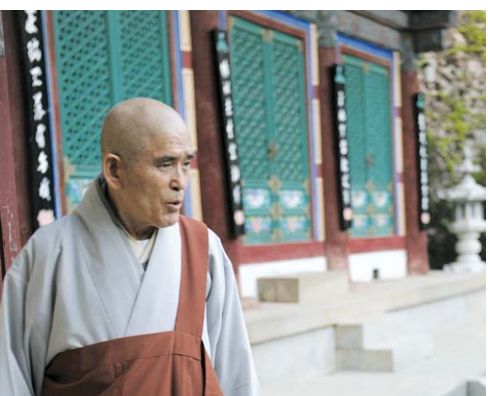


“참선? 해 본 사람만 참맛을 알 수 있지”



월성 스님은

1962년 구례 화엄사로 출가하여 금오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그 후 20년 넘게 해인사, 송광사, 칠불사, 불국사, 각화사 선원 등 전국 제방선원에서 수십 인거를 성만하였다. 지금 속리산 복천암에 주석하고 있는데, 이곳에 머문 햇수는 서른 해가 훨씬 넘는다.



복천선원장 월성 스님

복천암으로 올라가는 길은 초록빛 잔디였다. 복천암 초입에 이르자, 남새밭이 눈에 들어왔다. 고량마다 상추, 쪽갓, 고소, 열무, 고추 등이 제법 자라있었다. 여름 내내 선방 스님들의 찬이 되고 약이 되어 줄 공양물이다. 복천암은 고려 공민왕과 세조가 잠시 머물다 간 곳이며, 현대에는 성철 스님과 청담 스님이 이곳에서 배움과 가르침을 공부하였던 곳이다.

월성 스님의 거처에 들어서자 새소리가 요란하다. 깊은 산중에만 산다는 방아새는 두~두~두~하고 느린 네 박자로 울음을 토해내고 있다. 그리고 묵탁새와 딱따구리의 울음소리도 들린다.

스님은 연못빛 가득한 말처를 한 잔 주셨다. 차맛이 어떤 맛인지를 물었다. 짝짜름하고 달콤한 맛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스님은 정확한 답이 아니라 한다. 그래서 한 모금을 더 마시고 나서는 그냥 녹차맛이라 하였더니 스님은 그것도 정확한 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내가 지금 차맛을 물었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이 어디 있었어요? 그 맛을 글로 표현할 수가 있나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나. 몸이 다른데 어떻게 전달이 되겠는가? 답은 직접 마셔보라는 것이지. 이처럼 참선에 대한 그 맛도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떠들어대고 그 맛을 알 수 있었어요.”

이라 한다. 칠식(七識)은 말라식이라 하여 본래 갖추어진 마음의 심층에서 활동하는 자의식이고, 팔식인 알라식은 일곱 가지의 식을 생기기 하는 근원적인 마음이다. 구식(九識)은 부처님의 경지이다.

“팔식에는 자신이 생각하고 말한 모든 것이 그대로 입력되어 있어요. 참선은 바로 팔식을 지워나가는 것입니다. 육식과 칠식까지 소멸되면 죽었다고 하는데 팔식은 죽지 않아요. 팔식이 살아있으니 입력된 테이프 그대로 지니고서는 또 다시 다른 곳에서 새 몸 받아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은 현웃을 벗고 새웃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은 것이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세세생생 윤회의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월성 스님은 참선을 왜 해야 하는지를 간결하게 짚어주었다. 자꾸 사람 몸 받아 나서 좋은 법문 듣고 수행하다보면 언젠가는 자성을 완전히 깨달아 생사해탈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다. 달마 대사는 오성론(悟性論)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불은 본래부터 삼독 속에 계시면서 청정한 법을 기르면서 마침내 세존이 되셨다(諸佛從來常處於三毒 長養於白法 而成於世尊).”

월성 스님께 복천암에 머무신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언제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월성 스님은 세월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나이를 모르는 것임에 틀림없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개념을 없애고 생각이

참선수행은 팔식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 좋은 법문 듣고 수행하면 자성 깨닫게 돼

참선수행은 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선의 세계이다. 그러니 남에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직접 해보라는 말씀이다.

“요즈음 컴퓨터 세상이라고 하지만 컴퓨터도 전부 인간의 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컴퓨터는 바 이러스가 침입하면 입력된 것들이 전부다 지워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업식을 저장하고 있는 팔식(八識)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대상을 보는 마음을 안식(眼識), 소리를 듣는 마음을 이식(耳識), 냄새를 맡는 마음을 비식(鼻識), 맛을 아는 마음을 설식(舌識), 몸에 접촉하는 것을 아는 마음을 촉식(觸識), 보거나 듣는 것 모두를 혹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마음을 의식(意識)이라 한다.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가 작용하는 것을 묶어서 육식(六識)

일어나는 그 마음자리조차도 없애려고 깊은 산중에 들어와서 365일 화두 하나나 오롯이 들고 있는 스님께 시간을 묻는 것이 잘못이다. 월성 스님의 경지에서는 세월을 따진다는 것은 진흙소가 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월성 스님의 수행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해 줄 것이 없다고 하면서 조선시대 때 복천암에 주석하였던 신미 대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신미 대사는 출가 전부터 서서삼경을 섭렵하였고 불가에 들어와서는 범어(梵語)로 장경원전까지 모두 읽었다. 세종대왕은 만백성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글장제를 위하여 숨은 인재들을 발굴하여 집현전으로 초빙하였다. 그때 복천암에 주석하고 있었던 신미 대사가 발탁되었다. 신미 대사는 뜻글이 아닌 소리글자인 범어에서 착안을 얻어 한글장제를 진행하였다.

복천암에 보관되어 있는 <복천보장>에 의하면 ‘세종대왕은 신미 선사의 수고를 치하하고 보답으로 주석하고 있는 속리산 복천사에 주불 아미타불과 좌우보처 관음세지 양대보살을 금동으로 조성 시주하였다’고 적고 있다. 또 <이조실록>에 ‘세종 28년 12월 2일 부사직(副司直) 김수은(金守蘊)에게 명하여 <석가보(釋迦譜)>를 증보수찬하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김수은은 신미 대사의 동생이다. 월성 스님은 “불교문화의 정수인 <월인천강지곡>이 지어진 그 배경에는 한글장제를 주도한 신미 대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송유역발’ 시대에 한글장제를 기념하는 노래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하는 내용인 것에 대해



평소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오늘에야 그 의문이 풀렸다. 월성 스님은 앞으로 불교계와 학계에서 신미 스님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산김씨세보>와 복천암에 보관되어 있는 <복천보장>과 <이조실록>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해서 얹은 책자도 만들었다.

월성 스님의 방에는 유향로 그린 금오 스님의 영정이 걸려 있다. 은사인 금오 스님에 대한 존경심은 월성 스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그대로 배어있다.

“우리 스님은 참선하는 사람을 좋아하였고 계율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바로 불벼락이 떨어졌어요. 내일 떠난다고 날을 받아놓아도 오늘 밤까지 지게 지고 나무해야 했지. 여기에 대해 토를 달면 ‘네가 이곳에 이렇게 나무를 해놓으면 네가 가는

그곳에 나무 해놓는 것과 같다. 이곳에 이렇게 나무를 해놓음으로서 네가 그곳에 가도 누릴 수 있다’고 했어요.”

은사스님의 이 말씀은 평생토록 수행의 길잡이가 된단다. 절에 사람이 아홉이면 지계가 아홉 개였으며, 금오 스님 역시나 상좌들과 같이 지계를 찢었다고 한다. 금오 스님이 말보다는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시 것처럼 칠십을 바라보는 월성 스님 또한 아직도 도량씩 하시고 새벽 예불 올리신다. 이것이 불제자의 도리라 한다.

대웅전 뒤편으로 해서 산을 한참 올라가니 신미 대사의 부도탑이 눈에 들어왔다. 부도탑전에서 삼배를 올리고 산을 내려오니 어둑어둑해지더니 산 중이라 금세 해가 떨어졌다.

문운정(수필가 · 본지는설위원)

동일한의원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250-14

코 한방 (韓方)

코막힘, 비염, 축농증

코막힘 한방(韓方)으로 해결!!

코막힘, 비염, 축농증 답답하시죠?

이제 다년간의 연구와 연구성과를 거둔 죽전네거리 동일한의원에서 한방(韓方)으로 치료해 보세요!!

코가 정말 시원합니다

한의학박사 원장 노동일
보건의학박사
전(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매주 수요일 오후 휴진)

동일한의원
죽전네거리 50M
연지카바레
여촌마을횡집
구병원
두류네거리
성서IC
☎ 053)552-8800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25-중-2672호